三國時代 庶民들의 佛教信仰

金 煐 泰
(東國大 敎授)

Ⅰ. 백성들의 佛教 理解
1. 修福滅罪의 가르침으로
2. 功德짓는 信仰으로
Ⅱ. 民間 信仰形態
1. 觀音信仰
2. 彌勒信仰
3. 彌陀信仰
4. 地藏信仰
5. 妙見信仰
Ⅲ. 佛教信仰의 生活化
1. 庶民生活과 佛教
2. 生活 속의 信仰

머 릿 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의 現存史書를 통해서 볼 때, 三國이 처음 佛教를 받아들인 것은 모두가 國王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國家的인 受容이 先行되므로 인해서 王室 貴族들이 먼저 崇佛하게 된 것은 자연적인 신앙추세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로부터 단계적으로 그리 오랜 시일을 겪지 않고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신앙은 전파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佛教受容 역사를, 國家佛教·貴族佛教·庶民大衆佛教의 단계로 그 순서를 보려고들 한다. 그러나 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佛教에는 그러한 단계도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國家利益的인 면에서 國王이 받아들였으므로 國家佛教라 하고, 귀족이

중심이 되어 佛敎를 숭봉하였으므로 일컬어서 貴族佛敎라고 하며, 일반 백성들이 신봉하였기 때문에 庶民大衆佛敎라고 부르는 것일 따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보기와 편의상의 구별일 뿐이다. 佛敎는 본래가 무차별 평등에 입각한 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불교는 불완전한 인간성으로 연유해서 출발되었고, 중생의 苦惱로 말미암아 世間에 존재하며, 또한 부처님의 慈悲에 의해 修福滅罪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國家佛敎도 없고, 貴族과 庶民佛敎도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모든 인간에게 普遍均等하게 自我啓發과 福(德) 智(慧) 增長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宗敎인 까닭이다. 그러한 佛敎이기 때문에 처음 이웃 나라에서 전해져왔을 때에 國主인 왕이 받아들여 國家的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귀족들이 歸依하여 安心立命處로 삼았을 것이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신봉하여 福德을 짓고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일반 서민들의 불교신앙과 그들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史料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대충 고찰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Ⅰ. 백성들의 佛敎 理解

1. 修福 滅罪의 가르침으로

일찌기 高句麗의 故國讓王은 그 末年(391)[1]에, 百濟의 阿莘王은 그 元年(392)에 각각 '佛法을 崇信하여 福을 求하라'고 下敎하였다 한다.[2]

말할 것도 없이 그 下敎의 대상은 모든 백성들이 된다. 그 당시는 두

1) 三國史記 卷 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9年 3月條.
여기에는 분명히 故國壤王의 9年으로 되어 있으나, 現存 廣開土王碑에 의하면 廣開土王의 卽位年이 辛卯年(391) 즉 故國壤王 8年에 해당되므로, 그 父 故國壤王은 9年이 없고 8年을 末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三國遺事 卷 3 興法 3, 難陀闢濟條.

나라가 모두 佛敎를 받아들인 지가 오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王室과 貴族 중심의 佛敎時代로 보기가 쉽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 下敎가 귀족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國王 下敎의 本意에 어그러진다고 할 것이다.

이 下敎는 國王이 나라 다스리는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내린 敎勅이므로 國王의 政敎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잘 몰랐던 佛敎를 임금님이 직접 영을 내려 그 내용을 알리고 잘 믿을 것을 권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下敎에 의해 당시의 국민들은 불교를 지극히 믿으면(崇信하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求福은 祈福과 다르므로 福을 主宰하는 어떤 神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아니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佛法을 崇信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求福에는 佛敎의 崇信이 先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佛法의 崇信은 求福과 목적을 같이하는 同格語가 되며, 따라서 福을 얻고자 한다면 佛法을 崇信하여야 하고, 佛法을 崇信하면 곧 복을 얻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新羅의 法興王은 처음 佛敎를 일으킴에 있어서, 백성들(蒼生)을 위해 福을 닦고 罪業을 소멸시키는 장소(修福滅罪之處)인 寺院을 짓고자 하였다[3]고 한다. 여기에 있는 복을 닦음(修福)과 앞의 복을 구함(求福)은 전혀 같은 뜻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복을 닦는다는 것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原因行爲이므로, 곧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한다. 그 마음 닦는 것이 바로 佛法의 崇信이기 때문이다. 佛法을 崇信하면 마음이 닦여지므로 오랜동안(無始刼來로) 누적된 죄업이 소멸된다. 그 죄업이 소멸되면 바로 최상의 행복이 펼쳐지게 되므로, 복을 닦는 것(修福)은 곧 죄업을 소멸시키는 것(滅罪)이 된다. 그러므로 求

3) 上同 遺事, 原宗興法 條.

福과 修福은 같은 것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修福滅罪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高句麗의 廣開土王이 그 父王의 下敎 바로 이듬해(392)에 平壤에다가 9寺를 세웠다[4]는 것도, 백성들의 崇佛(修福滅罪)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널리 제공하기 위한 施設의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國都도 아닌 일부 지방인 平壤에다가 한 해 동안에 아홉 절을 세웠다면, 그 전후해서 여러 지역에 많은 절들을 세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百濟에도 절이 많았으며,[5] 新羅에도 많은 寺塔이 세워졌다고 한다.[6] 그러므로 高句麗에도 많은 절들이 세워졌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복을 닦고 죄업을 소멸시키는 곳이 寺院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당시에 있어서, 절이 많았다는 사실은 곧 修福滅罪하는 佛法崇信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물론 복을 닦고 죄업을 소멸시키는 일이 출가한 僧尼들만의 專業事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王城 안에 있는 大寺院들은 주로 王室과 귀족들만이 출입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방의 民家들 가까이에 자리한 절들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백성들이 드나들었을 것이다. 首都가 丸都(國內)城이었던 廣開土王 2年에 平壤에다가 세웠다는 아홉 절도 그 모두가 지방 귀족이나 豪族들을 위한 寺院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國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절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절이 있으면 반드시 僧尼가 있기 마련이다. 지방의 僧尼들은 寺院을 중심으로 하여 民間에 佛法을 전하고 또 福을 구하는 崇信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福을 닦는 것은 곧 罪業(無始劫來의 業障)을 소멸시키는 일

4) 前揭 史記 卷 18, 廣開土王 2年條.
5) 周書 卷 19 列傳 41, 異域 上 百濟 條 등.
"百濟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6) 前揭 遺事, 原宗興法 條.
"寺寺星張 塔塔鴈行……".

이므로, 業障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功德닦는(福짓는) 법도 알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佛敎를 受容하면서 일찍부터 국민들에게 佛法을 알리고 또 崇信을 권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아울러 政敎的 입장에서 寺院을 많이 세우고 僧尼도 많이 배출시켰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에 따라 일반 백성들도 상당히 일찌기 佛敎를 이해하고 신앙하게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佛敎를 복 짓는 가르침 즉 죄업을 소멸시키고(崇信하므로써) 복을(닦아) 얻는 가르침으로 보았으리라는 것이다.

2. 功德짓는 信仰으로

그와 같이 佛敎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백성들은 佛事에 同參도 하고 寺塔 세우는 데에 시주도 하였다. 또 힘 자라는 대로 願佛(小佛像)도 造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時代의 小佛像으로 오늘날까지 그 銘文을 남기고 있는 몇 가지 事例를 통해서 당시 서민들의 佛敎信仰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그 내용별로 대강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1) 生存의 父母를 위한 경우

甲寅年銘 釋迦像光背로 알려져 있는 이 銘文을 옮겨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甲寅년 3월 26일에 제자 王延孫은 현재의 부모님을 받들고자 金銅으로 釋迦佛像 1軀를 敬造하나이다.
>
> 원하옵건대 부모님께서는 이 功德으로 힘입어서 현재의 몸이 편안하시고, 世世 生生에 태어나실 때 마다 三惡道에 떨어지지 말고 八難을 멀리 떠나서 淨佛國土에 빨리 왕생하시어, 부처님을 뵈옵고 법문을 듣게하여지사이다.[7]

---

7)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p. 242~243.
甲寅年三月廿六日 弟子王延孫奉爲現在父母 敬造金銅釋迦像一軀 願父母乘此功德 現身安隱 生世世不經三塗 遠離八難 速生淨土 見佛聞法.

8) 현재 學界에서는 이 甲寅年을 594年(日本 推古 2年)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또 654年說도 있다고 한다(上同 金石遺文, p. 243).

甲寅年이 어느 때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8] 三國時代의 造像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같다. 이 光背銘의 願文을 통해서 지극한 효성을 보게 되는데, 그 효도의 공덕을 짓고자 佛像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살아계시는 부모가 현재세에 편안하시고, 死後에는 淨土에 왕생한다면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극한 효성의 마음으로 부모의 福德을 닦고자 그 아들이 佛像을 조성하고는 發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부모가 복되면 그 자손도 복이 된다. 부모를 위해 복을 닦는 것은 자신을 위한 功德지음도 되는 것이다.

(2) 先亡父母 또는 亡妻를 위한 경우

① 高句麗 佛像이 아닐 것이라는 說도 없지 않으나 國內의 現存佛像인 大和 13年銘 石佛像[9]은, 泐字가 많아서 완전한 判讀이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

…功德逮及七世父母 ……衆生咸同…

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先亡父母를 위한 造像일 것으로 짐작이 되어진다.

이 像銘에 "大和十三年歲在己巳"로 되어 있는 데에도 이 大和를 唐의 太和年號로 보았음인지, 新羅 統一時代의 佛像으로 推定한 學者도 있다.[10] 그러나 唐의 太和年間에는 13년도 己巳年도 들어있지가 않으며, 高句麗 長壽王의 77년(489)에 해당되는 해가 바로 北魏 孝文帝의 太和 13年 己巳인 것이다.

② '癸未年 11月 1日'로 시작되는 金銅三尊佛像銘[11]에는,

寶華爲亡父趙□人造

9) 李蘭暎編, '韓國金石文追補' p. 53~54.
中吉功著, '新羅・高麗の佛像' p. 425.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古代편, p. 17~18 등.
10) 上揭 金石文追補(p. 53)와 新羅・高麗の佛像(p. 425).
11) 前揭 金石遺文, p. 240 등.

라고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造像임을 알 수가 있다.

③ 또 '永康七年'으로 시작되는 金銅彌勒像光背銘[12]에는,

爲亡母造彌勒尊像……

이라 있으므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彌勒像 조상임을 알게 된다.

④ 그리고

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塗[13]

라고 있는 金銅如來立像銘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造像한 사례로 볼 수가 있다.

(3) 値佛聞法을 願한 경우

① '建興五年歲在丙辰'으로 시작되는 金銅佛像光背銘[14]에는,

佛弟子淸信女 上部兒奄 造釋迦文像 願生生世世値佛聞法 一切衆生同此願

이라 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淸信女가 정성스레 佛像을 조성하고 그 공덕으로 生生 世世에 부처님을 만나 법문 듣기를 발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② 甲(申)年으로 시작되어 있는 金銅釋迦坐像光背銘[15]도 判讀할 수 있는 부분이,

施造釋迦像(正遇) 諸佛永離苦……

의 몇 자에 불과하지마는, 앞의 경우와 같이 世世 生生에 諸佛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苦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발원하였던 것임을 짐작할

12) 上同 p. 238 등.
13) 上同 p. 241~242 등.
14) 上同 p. 239 등.
15) 上同 p. 241 등.

수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일 이전 三國時代의 것으로 推定되는 佛像光背의 銘文 중에서, 出家人이나 王室의 造像이 아닌 백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것만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충분한 자료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銘文을 통해서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어떻게 신앙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국민들이 佛法을 崇信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았던 사실을 엿볼 수가 있으며, 아울러 現生의 福만이 아니고 來生의 福德까지도 希求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즉 現身의 安隱은 물론 世世에 生하면서 三塗苦를 겪지 않고 八難을 遠離하여 淨土에 速生해서 見佛聞法코자 하였으며, 生生 世世에 佛陀에 値遇하여 법문 듣기를 원하였다는 것이다.

現生으로 끝나지 않고 死後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은 비단 佛敎人들만이 아니라도 原始的부터 人類가 그렇게 여겨 왔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佛敎에서는 단순한 印度宗敎的 輪廻說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無始劫來의 罪業을 소멸시키므로 해서 그 輪廻가 끝이나게 된다고 믿는다. 無明의 所致로 형성된 業障은 하루 아침에 이슬녹듯 그렇게 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世世 生生을 인정하게 된다. 業力이 무거워 生生 世世의 輪廻를 면하기가 어려우므로 佛法崇信의 그 功德과 福力으로 佛法을 만나서, 三塗苦를 면하고 八難을 遠離하여 속히 佛淨土에 태어나기를 希願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値佛聞法'이나 '速生淨土 見佛聞法'은 다 같이 佛淨土에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나라(佛淨土)에 태어난다는 것이 된다. 佛의 世界 즉 佛國淨土는 輪廻가 없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淨土에 速生하여 부처님을 만나 직접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輪廻를 벗어나는 것이며, 아울러 三塗와 八難의 모든 괴로움에서 解脫하게 되는 것이다.

人間苦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八難이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輪廻하여 三惡道(三塗)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輪廻에서 벗어난 解脫이 가장 最上勝의 幸福이 된다. 당시 백성들도 그러한 究竟의 福德(最上의 幸福)을 이해하고 그것을 希願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서원을 발하여 佛事짓는 공덕을 쌓아서 직접 佛法을 崇信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Ⅱ. 民間 信仰形態

여기서의 民間 信仰形態란 물론 三國에서의 佛敎 民間信仰형태를 가리킨다.

佛敎의 信仰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民間的이거나 非民間的인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衆生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佛敎이므로, 千差萬別한 인간의 根機와 知性과 趣向 및 個性에 適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方便과 敎說이 多樣하게 마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敎學에도 中觀·瑜伽·實相·緣起 등을 중심으로 하여 三論·天台·三階普法·唯識法相·華嚴·淨土·密學 등의 갈래로 나뉘어지고, 信仰類形에도 特殊經典을 持誦하거나 彌陀·彌勒·觀音·地藏 등의 佛菩薩 名號 및 眞言陀羅尼를 念持하고 歸依하는 여러 형태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民間에서의 佛敎信仰은 敎學이나 實踐修道 보다는 주로 복을 닦고 공덕 짓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修福滅罪하는 民間的 信仰行爲는 求福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現身安穩과 三塗 八難의 輪廻苦 解脫과 見(値)佛聞法의 佛淨土 受生을 希求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信佛傾向이 결국은 觀音念持와 彌勒値遇 念願과 彌陀淨土 希求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資料에 의하면, 三國時代 民間에서 奉行되었던 崇信類形으로는 釋迦佛·彌陀佛·彌勒·觀音·地藏·妙見 菩薩 등을 들 수가 있다.

佛敎 자체가 釋迦佛의 가르침이므로 이 本尊佛信仰을 구태어 이 範疇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觀音·彌勒·彌陀·地藏·妙見信仰등을 그 순서에 따라 대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觀音信仰

앞에서 본 甲寅年銘 金銅釋迦光背에서, 王延孫이 그 父母의 現身安隱과 世世 生生에 三塗를 不經하고 八難을 遠離하기를 希願한 것을 보았었다.

이는 모두가 無明惑業所生의 인간이 받는 모든 괴로움(輪廻苦)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希願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人間苦의 必然性을 보게 되는데, 修福滅罪하므로써 離苦得樂하고 現身安穩코자 하는 것이 백성들의 佛法崇信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한 民間信仰에 있어서 普門示現하고 圓通自在하는 神通妙力으로 救苦救難하는 觀世音菩薩에 대한 신앙이 매우 밀접해 있었으리라고 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당할 때에 觀世音菩薩을 한마음으로 일컬으면 그 보살이 곧 모든 苦惱에서 벗어나게 한다.[16]는 것이므로, 大慈大悲한 觀音의 救濟力에 힘입고자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觀音信仰은 現實當面의 人間苦를 救濟받고자 願求하는 일반 庶民들에게 있어서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이므로, 三國이 모두 이 觀音信仰은 民間에 많이 流布되었을 것이다.

(1) 高句麗의 경우도 觀音信仰은 民間에 流布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現存資料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다만 日本僧 行善이 高句麗에서 觀音의 應驗을 입었다는 故事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알 수가 있다.

16) 妙法蓮華經 7, 觀世音菩薩普門品(大正藏 9, p. 56 下)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一心稱名 觀世音菩薩即時觀其音聲 皆得解脫.

行善은 高句麗에서 오랫동안 求法하였는데, 한번은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나 마침 다리를 건너는 한복판에서 홍수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는 요행히 다리 말뚝을 붙들고 오직 觀音을 念하였다. 때마침 갑작스레 한 노인이 배를 저어와서 구해주었으므로, 언덕위에 오른 그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돌이켜보니 거기에는 노인도 배도 없었다. 그는 비로소 觀音의 應現임을 알고 크게 發心하고는 觀音像을 조각하여 밤낮으로 禮敬을 다하였다는 것이다.[17]

물론 行善은 日本僧이다. 그러나 그가 觀音에게 救濟를 받은 것은 高句麗에서 공부할 때였다. 高句麗의 시골 마을길을 가다가 觀音의 應現을 만난 것이므로 말할 것도 없이 高句麗의 觀音靈驗事實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시골 홍수 진 냇물 가운데에 노인으로 나타나 行人을 구해준 觀音은 필시 당시 高句麗의 民間에 널리 신앙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백제의 경우는 觀音信仰의 흔적이 아직도 몇 가지가 남아 전한다.

天監年中(502~519)에 梁으로 가서 30여년을 留學하고 귀국한 沙門發正은 귀국 도중 그곳 越州界의 觀音堵室을 목격하고 觀音應驗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18]는 것인데, 비록 國內의 觀音談은 아니지마는 百濟에 돌아온 發正에 의하여 觀音의 靈驗이 알려졌을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百濟에는 觀音信仰經典 중의 하나인 請觀世音經[19]이 信奉되었으며,[20] 聖德山 觀音寺의 信仰緣起說話가 전해지고 있다.[21] 특히 觀音寺의 說話에서는 貧寒한 시골의 한 처녀에 의하여 觀音信仰이 널리 펼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年代는 분명치 않으나 百濟에 佛敎가 홍성하였을 때의 일인 듯하다. 全

17) 元亨釋書 16, 扶桑略記 6, 本朝高僧傳 67 등.
18) 唐 僧詳撰, '法華傳記' 6 (大正藏 51, p. 72) 및 '觀世音應驗記' 등.
19) 東晋天竺居士 竺難提譯,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 (大正藏 20, p. 34~38).
20) 善光寺緣起(日本佛敎全書 86 卷).
百濟의 請觀音經信仰에 관해서는 拙稿 '善光寺緣起를 통해 본 百濟의 請觀音經信仰과 그 日本傳授' (佛敎學報 19 輯)가 있다.
21) 聖德山觀音寺事蹟(朝鮮史料叢刊 上, p. 244~248).

南 谷城郡 玉果에 聖德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樂安 땅의 바닷가에 간 일이 있었다. 그 때 바다 저 쪽에서 사공도 없는 조그만 石船 하나가 무엇에 이끌린듯 聖德처녀 앞에 와 닿았으므로, 聖德은 텅 빈 그 배 안에서 金像觀音을 발견하고는 그 觀音像을 업고 나왔다. 처녀는 觀音像을 업고 자기 집이 있는 玉果 땅으로 향하였는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에 이르니 像이 갑자기 무거워져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천금같이 무거워 꼼짝도 않는 觀音像이 자리한 곳에 절을 지어 金像觀音을 모시고는, 절 이름을 聖德山 觀音寺라 하였다는 것이다.[22]

옛 百濟 지역에서 出土된 佛像 가운데에 觀音像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당시 百濟에 觀音信仰이 매우 성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진다. 보다도 貧寒한 山村의 한 처녀가 바닷가에 가서 주워업고 온 觀音像이 山寺에 안치되어 地方民의 信奉을 받았다는 것에서, 가난한 시골백성들의 生活空間에 자리잡고 있었던 觀音道場의 한 事例를 보는 듯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百濟에는 바닷가나 山間이나 들녘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 觀音信仰이 널리 流布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新羅의 경우는 위의 두 나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편이다.

그러나 民間에서의 觀音신앙을 알만한 자료 중에서 통일이전의 것은 별로 남아 전하는 것이 없다. 아마 통일이전의 新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觀音信仰의 사례는 高僧 慈藏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眞骨귀족이었던 宰相 茂林蘇判은 아들을 얻기 위해 三寶에 歸心하고 觀音像 千部를 造成하였다. 과연 그로부터 아들을 낳았었는데 마침 佛誕日이었으므로 이름을 善宗郎이라 하였다. 그가 뒷날 출가하여 大國統이 된 慈藏法師이다.[23]

---

22) 拙稿, '百濟의 觀音思想'(馬韓・百濟文化 3輯, 圓光大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79).
23) 遺事 4 義解 5, 慈藏定律 條.

물론 慈藏은 최고 귀족인 眞骨出身이므로 일반 庶民의 信仰事例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들 얻기를 希求하여 觀音에 祈願한다는 그 자체는 民間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觀音은 아들을 위하여 禮拜供養하는 이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원하는 경우에는 딸을 얻게 하여 준다는 것이므로[24] 그러한 신앙이 民間에 깊이 파고들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新羅末에 崔殷誠이란 사람이 衆生寺의 觀音앞에 빌어서 아들을 얻고, 석달이 채 못되어 난리가 나서 그 觀音像 座下에 아기를 맡겨두고 보름 뒤에 와서 보니 어린애는 금방 목욕시킨 것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이야기[25]에서도 증명이 된다고 할 것이다.

통일 후 新羅의 觀音 靈應事實이 三國遺事에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庶民속에 같이 호흡하며 利生하였던 觀音應驗事例도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26]

觀音은 救苦利生하는 現實利益的인 信仰對象이므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근한 依支處로서 尊崇받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27]

2. 彌勒信仰

彌勒信仰은 中國에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신앙된 흔적이 있으므로 인접한 高句麗에서는 일찌기 그 신앙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國寶 85號로 지정된 金銅辛卯銘三尊佛光背銘文에 의하면, 比丘와 善知識 5人이 發願하여 無量壽佛 1軀를 조성하고 그 功德力으로 亡師父母의 彌勒佛 値遇를 祈願하고 있다.[28] 비록 出家者에 의한 造像銘文이기는 하

---

24) 前揭 法華經 普門品(大正藏 9, p.57 上).
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智慧之男 設欲求女 便生端正有相之女

25) 遺事 3 塔像 4, 三所觀音 衆生寺 條.
그 때 그 아기가 高麗初의 名臣 正匡 崔丞魯였다고 한다.

26) 拙稿, '新羅의 觀音思想'(佛敎學報 13, 1976) 參照.

27) 三國時代의 觀音信仰 全般에 관해서는 拙稿 '三國時代의 觀音信仰'(佛敎文化硏究院編, '韓國觀音信仰硏究', 1988)에서 詳考함.

28) 前揭 金石遺文, p.237 및 文公部 文化財管理局編 '文化財 大觀' 國寶篇, p.180 등.
'…願亡師父母生生心中 常値諸佛善知識等 値遇彌勒所願如是 願共生一處 見佛聞法'.

나 당시(平原王 13年으로 推定되어 있으나 不確實함, 高句麗 때의 佛像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음) 三國時代의 彌勒信仰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역시 高句麗佛像으로서 永康七年銘의 金銅彌勒像은 亡母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全文의 判讀은 어려우나 彌勒下生成佛時의 三會說法에 値遇할 것을 希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29]

百濟에도 彌勒信仰의 자취가 없는 바는 아니지마는,[30] 民間에서의 庶民的인 신앙흔적을 전하는 자료는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다.

新羅의 경우에는 彌勒信仰에 관하여서도 三國遺事에서 10여종이라는 적지 않은 신앙자료를 전하고 있다.[31] 그러나 王室이나 寺院에 관련되는 것이거나 귀족과 出家沙門에 관계되는 事例들 뿐이고 庶民的인 신앙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가 않은 편이다.

다만 구태어 서민적인 것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한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다. 즉, 僧 調信이 꿈속에서 還俗하여 여러 아이를 낳고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15세된 맏아들이 굶어죽게 되어 땅속에 파묻었는데, 꿈을 깬 뒤에 그 장소에를 찾아가 땅을 파보니 거기에서 彌勒石像이 하나 나왔다는 것이다.[32]

비록 꿈 속이기는 하나 가난한 村夫가 굶어서 죽은 아들을 묻었으니 그 마음의 苦痛은 극에 달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그 아픈 기억이 생생하였기에 꿈에서 깨어나 修道沙門의 자신으로 돌아온 그가 그곳을 찾아가 땅을 파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 꿈의 아픔을 묻었던 땅 속에는 꿈아닌 생시의 石彌勒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

29) 前揭 註 12.
他書(金石文追補, 金石全文 등)에서는 '玆民' 또는 '玆氏三會'라 있으나, 이는 慈氏三會 즉 彌勒三會라야 옳은 것이다.

30) 拙稿, '彌勒寺創建緣起說話考'(馬韓·百濟文化 創刊號) 등.

31) 新羅의 彌勒信仰에 관하여서는 拙稿 '白月山二聖說話研究'(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1965). '彌勒仙花攷'(佛教學報 3·4 合輯, 1966). '新羅의 彌勒思想'(東大 論文集 14, 1975) 등이 있다.

32) 遺事 塔像 4, 洛山二大聖 調信條.

이 이야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思想性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가난한 庶民들의 꿈이었으면 하는 아픈 生活苦 속에서 彌勒의 慈悲心이 살아있다는 뜻도 될 것 같다. 어쨌든 新羅뿐 아니고 三國時代의 彌勒信仰은 民間 서민들 사이에 깊이 묻혀서 喜怒哀樂을 함께 호흡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33]

3. 彌陀淨土 信仰

三國時代의 彌陀(淨土)信仰에 관하여서도 그 受容과 展開의 전반에 걸친 管見을 이미 拙論으로 發表한 바가 있다.[34]

이 彌陀信仰 또한 新羅를 제외한 麗·濟 두 나라에서의 民間的인 現存 자료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물론 出家修道僧이나 貴族들에 의해 造成된 彌陀像이나 신앙흔적만이 남아있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드물다는 것 뿐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 있는 甲寅年의 金銅佛像에는, 王延孫이라는 사람이 現在의 父母를 위해 釋迦像을 敬造하고는 그 부모의 現身安隱은 물론 速生淨土를 發願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의 淨土도 彌陀佛淨土를 가리키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彌陀佛의 極樂淨土는 三塗 八難의 輪廻苦를 영원히 벗어난 세계이므로 모든 佛子가 끝내는 그 곳으로의 往生을 念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淨土이므로 高句麗나 百濟의 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彌陀를 信奉하고 淨土를 希求하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新羅의 경우는 彌陀信仰의 자료 또한 적지 않게 남아 있다.[35] 그러나 이 역시 出家修行者나 王室귀족관계가 대부분이며 일반 서민에 관한 것은 드문 편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의 자료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통일전 新

33) 三國時代의 彌勒信仰에 관해서는 拙稿 '三國時代의 彌勒信仰'(佛敎文化硏究院, '韓國彌勒思想硏究', 1987)이 있음.
34) 拙稿, '三國時代 彌陀信仰의 受容과 그 展開'(佛敎文化硏究院, '韓國淨土思想硏究', 1985).
35) 拙稿, '新羅의 彌陀思想'(佛敎學報 12, 1975).

羅의 서민적인 彌陀信仰을 살펴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4. 地藏信仰

통일 후의 新羅에는 地藏菩薩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三國時代의 國內 現存 資料상에는 地藏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三國時代에 地藏信仰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의 海東佛教는 中國쪽에서 전해져 왔으므로 그 곳에서 傳譯된 佛典과 信行된 經教는 거의 빠짐없이 전래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地藏信仰의 중요한 所依經典[36] 중에서 가장 앞서 傳譯된 것으로 보이는 大方廣十輪經[37]은 北凉 때(397~439) 즉 高句麗 廣開土王 7년(百濟 阿莘王 6年)에서 長壽王 27년(百濟 毗有王 13年) 사이의 번역이며, 占察經[38]은 隋代(581~617)의 번역에 속하기 때문에 三國時代에는 충분히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國內의 현존자료에서는 당시의 地藏信仰을 알게 하는 직접적인 史料는 볼 수가 없고, 다만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신앙적 존재를 짐작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高句麗의 자료는 보기가 어렵고, 百濟의 경우 日本資料를 통해서 겨우 엿볼 수가 있으며, 新羅의 경우는 占察法會를 행한 史實을 미루어서 地藏信仰의 民間的 경향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을 따름이다.

日本의 현존자료에 의하면, 日本 최초의 地藏像인 法隆寺 奉安의 三殊勝 地藏尊像(木立像)은 百濟에서 威德王 24年(日本 敏達 6年·577) 丁酉 10

36) 北凉 失譯, '大方廣十輪經'
隋 菩提燈譯, '占察善惡業報經'
唐 玄奘譯,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唐 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

37) 譯者가 未詳인 이 經은 8卷 15品으로 되어 있는데 地藏信仰을 고취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玄奘譯 地藏十輪經의 同本 異譯이다. 현재 大正藏 제 13권 등에 수록되어 있다.

38) 上下 2卷으로 되어 있는 이 占察經은 地藏菩薩經 또는 地藏菩薩業報經이라고도 불리우는 經名 그대로 地藏菩薩이 說主이며, 현재 大正藏 제 17권 등에 수록되어 있다.

월에 보내진 것이라고 한다.[39] 특히 第26代 聖王의 發願으로 조성된 像이라고 하니 百濟에 일찍부터 地藏信仰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는 서민들의 地藏信仰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新羅에서는 眞平王代(579~632)에 占察法會가 행해졌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통하여 新羅의 民間에 地藏信仰이 流布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眞平王 때의 高僧 圓光은 入中(眞平王 11年·589) 求法에서 귀국한(同 22年·600) 다음 크게 敎化를 떨쳤는데, 특히 歸戒 滅懺의 法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자신이 거처하던 嘉栖寺에 占察寶를 두어 占察法會를 定期的으로 행하게 하였으며, 그때 어떤 女信徒가 田畓 100結을 占察寶에 바쳤다고 한다.[40]이 占察寶는 占察法會를 運營하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財團이었으므로, 民間信徒들을 위한 占察法會가 圓光法師에 의해 조직적으로 잘 행하여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眞平王 때의 比丘尼 智惠는 仙桃山 神母의 現夢 지시에 따라, 매년 봄과 가을의 두 계절에 열흘동안 善男善女를 모아서 널리 一切含靈을 위해 占察法會를 베푸는 것을 恒規로 삼았다고 한다.[41] 물론 智惠比丘尼가 베풀었던 占察法會도 善男 善女 즉 일반 민간의 신도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며, 그가 머물고 있던 安興寺에서 행하였다는 것이다. 圓光도 그의 所住處인 嘉栖寺에서 행하였고, 智惠尼도 그가 머물었던 절에서 행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庶民들을 敎化하던 여러 寺院에서 적잖이 占察法會를 행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진다. 그 한 예로서 眞平王代 보다는 좀 後代에 속하지만 元曉(617~686) 당시의 서민인 鮎福이 그 母尸를 업고 華藏世界에로 들어간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道場寺에 해마

39) 釋覺賢輯, '琓鳩古事便覽' 東御殿三殊勝地藏尊立像(日本佛敎全書 117 册, p.100 上).

40) 遺事 4 義解 5, 圓光西學 條. 故宜以歸戒滅懺之法 開曉愚迷 故光於所住嘉栖寺 置占察寶 以爲恒規 時有檀越尼 納田於占察寶 今東平郡之田一百結是也.

41) 遺事 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 條.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以爲恒規.

다 占察法會를 행하는 것을 恒規로 삼았다는 것[42]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통일이전의 新羅에서 행해졌던 占察法會는 말할 것도 없이 占察經에 說해져 있는 占察法에 의한 法會였다. 이 經의 說主인 地藏菩薩이 占察法을 說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經에 의하면, 地藏菩薩은 3種輪相의 여러가지 占察方法과 懺悔修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끝으로 189種의 善惡果報 差別의 相을 說하여,

> 만약 未來世의 衆生들이 吉善과 求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갖가지의 憂慮逼惱로 怖懼할 때에 응당히 밤낮으로 항상 부지런히 나(地藏菩薩)의 이름을 誦念하라. 능히 至心한 사람은 占察하면 곧 吉하고 求하는 바를 모두 얻게 되어 衰惱를 떠나게 된다.[43]

고 하여 있다. 그리고 占察하는 方法에 대해서는,

> 마땅히 一心으로 南無地藏菩薩摩訶薩을 誦念하여 稱名하되, 그와 같이 稱名하기를 천번을 채우고 나서, "地藏菩薩摩訶薩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大慈大悲로 護念하옵소서."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木輪을 취고 淨物 위에 던진다.[44]

라고 說하였다.

新羅에서의 占察法會는 그러한 占察經 所說의 占察을 행하는 修懺法會이므로, 틀림없는 地藏信仰이라고 할 수가 있다. 庶民들이 인연있는 寺院에 모여 그와 같은 占察懺悔法을 닦는 地藏信仰을 행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통일후 新羅의 占察懺悔 및 地藏信仰[45]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5. 妙見信仰

이상의 信仰 밖에 특히 百濟에서 妙見(北極星) 신앙이 民間에 행하여졌

---

42) 遺事 4 義解 5, 蛇福不言 條.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 額曰道場寺 每年三月十四日 行占察會爲恒規.

43)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 17, p. 906 下).

44) 上同(上同, p. 903 上).

45) 拙稿,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硏究'(佛敎學報 9, 1972).
拙稿,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思想'(朴吉眞博士華甲記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흔적이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妙見信仰이란 '七佛所說神呪經'에 들어있는 北辰妙見菩薩에 대한 信仰이다.

"我 北辰菩薩은 이름이 妙見이다. 이제 諸國土를 옹호하는 神呪를 說하고자 하는데, 그 作用이 매우 奇特하므로 이름을 妙見이라 한다. 閻浮提에 거처하여 衆星중에 最勝하고 神仙중의 神仙이며 菩薩의 大將이니, 諸菩薩을 눈뜨게 하고 모든 群生을 널리 구제한다."

라고 시작하여, 神呪를 說하고 國王의 修三德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짤막한 단편이다.[46]

여기에는 '曠濟諸群生'이나 '若諸人王不以正法……酷虐百姓我能退之'라든지, '包含民物猶如父母', '不枉民物猶如明鏡', '憐愍貧窮國有孤老當撫恤之' 등의 庶民을 위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妙見信仰에 관한 國內의 記錄은 전혀 볼 수가 없으나, 百濟聖王의 제 3 王子(日本에서는 琳聖太子라 通稱되어 있음)가 威德王 44년(597) 쯤에 渡日하여 日本에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47] 七星信仰과 같으면서도 群生과 庶民에 비중을 두고 있는 妙見信仰은 日本 民間에서는 지금도 信奉되어지고 있다. 三國時代에 流布되어 있던 이 信仰은 아마 百濟멸망 이후에 七星信仰에 흡수된 듯하다.[48]

Ⅲ. 佛敎信仰의 生活化

1. 庶民生活과 佛敎

지금까지 대충 살펴 본 것을 통하여서도 佛敎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46)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卷 2 (大正藏 21, p. 546 下~547 中).
47) 江匡弼文坡撰 '北辰妙見菩薩靈應編'.
澤了 集 '鎭宅靈符緣起集說' 卷上.
校訂 '後太平記' 天部 卷 2 등.
48) 拙稿, '百濟琳聖太子와 妙見信仰의 日本傳授' (佛敎學報 20, 1983).

지면서 그 신앙이 庶民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佛敎信仰에는 出家的인 것과 在家的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란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理解하고 따름으로써 佛과 같이 되고자(成佛하고자)하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는다.

佛說 經敎를 受持하고 그 敎理를 조직 체계화하여 學究하며, 그것을 自己化하기 위해 실천 修行하는 것을 합쳐서 佛法공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修學參究의 전문적인 공부는 주로 出家修道者들이 행하였다.

그와 같은 專修的 信行 외에도 佛敎信仰行爲에는, 災殃과 不幸을 물리치고 成事와 離苦得樂을 祈願하는 면도 있다. 즉 앞에서 본 修福滅罪의 求福崇信과 비슷한 것으로서 祈福攘災的인 信仰이다. 이러한 祈攘的 信行은 주로 家庭生活의 民間人들이 많이 행하였다.

우리들이 사는 世間은 必然的인 人間苦의 現場이므로 佛敎에서는 이를 娑婆(忍苦의 世界)라고 한다. 그러한 娑婆이므로 人間苦의 當體와 그 必然的 因과 緣을 了解 把握하여야만 비로소 惑業에 의한 苦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끝없이 되풀이 되는 無明의 輪廻苦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涅槃이라 하고, 그 涅槃(깨달음의 세계)을 얻은 이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체득하고자 修學參究(精進)하는 것이 出家修道하는 專修者의 信行이다. 그러나 業障이 더욱 두터운 在家生活人은 修行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衆生救濟라는 慈悲願力에 힘입어 福을 닦고 공덕을 짓는 信仰方便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佛 菩薩의 慈悲願力에만 매달려서 의지하기만 하여서도 안된다.

어디까지나 佛이 敎說한 緣起(因果應報)의 眞理性을 믿고 了解하려는 생활자세에서 의지(歸依)하여야 하며, 懺罪滅業함으로써 무한한 淸淨自性을

啓發하는 생활위치를 향해서 福을 닦고 공덕을 지어야 한다. 佛敎는 智慧의 宗敎이므로 무조건 絕對者에 매달리는 祈福攘災가 되어서는 안된다. 般若(智慧)에 의한 攘災祈福이 되어야만 참된 佛敎信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속에서 佛法을 崇信하고 생활 그 자체에서 信仰이 살아 숨쉬어야 바른 佛敎信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三國時代와 통일 전성기의 新羅時代에는 그러한 신앙을 하였던 것 같다. 앞에서 본 자료를 외에도 극히 드문 자료를 통해서 그와같은 신앙사실의 짐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高句麗의 大臣 이름에 淨土[49]가 있었고, 將軍 이름에 沙門[50]이 있었던 例를 통해서도 佛敎가 생활에 밀접해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百濟에서는 國王이 殺生을 금하는 令을 내려 民家에서 기르는 鷹鷂를 놓아주게 하고 漁獵道具를 불태우게 하였다[51]는 사실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不殺生 즉 佛敎의 慈悲實踐을 生活化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新羅에서는 眞平王·善德王 때의 高僧 惠宿과 惠空이 한 사람은 村里에서 한 사람은 街巷에서 村民과 庶民大衆을 敎化하였으며,[52] 大安聖者는 市廛에 돌아다니면서 市井人을 敎化하였고,[53] 聖師 元曉는 千村萬落(전국방방곡곡)을 舞臺로 삼아 거지나 개구장이 아이들까지도 佛法을 알게 하였다.[54] 그리하여 新羅에는 上下 貴賤 구별없이 모두가 佛法을 理解하고 崇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49) 史記 新羅本記 6, 文武王 6年 12月 條.
"…高句麗貴臣 淵淨土…".
50) 史記 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18年 11月 條.
"…與我將 溫沙門戰…".
51) 史記 27 百濟本記 5, 法王 即位 12月 條.
52) 遺事 4 義解 5, 二惠同塵 條.
53) 宋高僧傳 4, 新羅元曉傳(大正藏 50, p.730 中).
54) 遺事 4 義解 5, 元曉不羈 條.

2. 生活 속의 信仰

불교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現存자료상에서는 그 適確한 史例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삼국시대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었던 불교신앙 모습과 그 신앙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佛敎信仰의 일반화로 인하여 貧賤兒女子들 까지도 생활 속에서 因果應報의 진실을 믿으며, 공덕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 三國時代의 현존史例는 볼 수가 없으나, 통일 직후 新羅의 자료에서 그 몇 몇 예를 들어볼 수가 있다. 즉 義湘(625~702) 門下 10大德의 한 사람인 眞定의 어머니와, 佛國寺 創建主 金大城의 前生이었다는 머슴 아이 大城母子 및 천정을 뚫고 솟아올라 往生하였다는 婢女 郁面의 이야기 등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 眞定法師가 출가하기 전의 일이다. 그는 卒伍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공무가 끝나면 남의 일을 해주고 그 품삯으로 좁쌀을 받아와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이 얼마나 가난하였던지 재산이라고는 오직 다리 부러진 솥(折脚鐺) 하나밖에 없었다. 그처럼 가난해서 그는 장가도 못들고 있었다. 하루는 化主僧이 와서 절 짓는데 쓰일 鐵物을 시주하기를 청하였으므로 그 어머니는 家中 唯一의 재산인 그 솥을 시주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시주한 일을 알리면서도 어머니는 은근히 미안하고 염려스러웠는데 아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佛事에 시주하였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솥이 없으면 瓦盆으로 밥을 짓지요." 라고 하였다.

그 뒤 아들은 義湘法師가 太伯山에서 說法利人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곧 그리로 가서 머리를 깎고 佛道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아들로 부터 들은 어머니는 즉석에서 아들의 출가를 강경하게 재촉하였다.

"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人生은 너무나 빠르다. 내가 죽은 뒤에 출가하면 너무 늦어서 안된다. 佛道를 배우는 일에 나의 죽음을 핑계로 머뭇거려서는 안되니 빨리 가도록 하라.

네가 나 때문에 출가를 늦춘다면 나는 출가를 방해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꼭 나한테 효도하려거던 아무 소리 말고 빨리 떠나거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한사코 지금은 출가하지 않고 효도를 다한 뒤에 출가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곧 부엌으로 가서 양식자루를 다 털어 밥을 지어서 아들의 발걸음이 밥 지어먹는 시간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주먹밥을 만들어 꾸러미에 꾸려 손에 쥐어주면서 빨리 떠나기를 성화같이 재촉하였다. 쌀 한톨 없는 집에 어머니 혼자만을 남기고 출가의 길에 나선다는 것은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며 매달렸으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떠나가게 하였다.[55]

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人生은 大速하며 아들의 출가를 방해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어머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타이르는 간절한 어머니의 호소와 진정앞에 그 孝子도 出家의 길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의 힘만이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어머니가 보여준 자세는 아마도 유일한 家財인 折脚鐺을 佛事에 기꺼히 내놓을 수가 있고 佛法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절실히 느낄줄 아는 그 佛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일찌기 아들 하나만을 두고 과부가 된 지지리도 가난에 찌든 외로운 여인이 그러한 信心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생활과 함께하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한 여인이 보여준 것을 통하여 당시 貧賤한 庶民들의 생활과 불교신앙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神文王代에 京師 서쪽 牟梁里에 慶祖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의 머리가 城처럼 생겼다고 해서 大城이라고 이름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大城은 福安이라는 부자집에 머슴살이를

55) 上同 5 孝善 9, 眞定師孝善雙美 條.

하면서 전답 몇 뙈기를 얻어 부쳤다.

어느날 漸開라는 화주승(開士)이 佛事를 위해 복안家에서 베 50疋을 시주받고는 축원하기를,

"시주께서 布施를 즐겨하시니 天神이 항상 護持할 것이며, 하나를 시주하면 萬倍를 얻을 것이니 安樂하고 壽命이 길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大城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은 前生에 善行을 하지 않아서이니 만약에 今生에 布施하지 않으면 來世에는 더욱 가난할 것이므로, 우리도 불사에 새경밭을 시주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 어머니도 아들의 뜻을 따랐다. 그 전답을 시주한지 얼마 안되어 大城은 죽었다. 그가 죽은 그 날밤 國宰 金文亮의 집에서는 하늘로부터 "牟梁里의 大城兒가 지금 그대의 집에 託生한다."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로부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大城이라 이름하였다. 사람을 시켜 대성이란 아이가 과연 그 때 죽은 사실을 확인한 宰相은 그 貧女(前 大城의 母)를 데려다 함께 살게 하였다는 것이다.[56]

그 金大城이가 나중에 大相이 되고 또 佛國寺와 石佛寺를 세웠다는 것인데, 布施한 공덕으로 당장에 빈천한 몸을 재상가의 귀동자로 바꾸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빈천한 모자가 보시공덕의 인과응보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그 신앙자세를 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생에 布施(善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빈천한 것이며,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來生에는 더욱 빈곤할 것이라고 믿었었던 소년이 하나를 보시하여 만배를 얻는다는 化主僧의 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새경밭을 기꺼이 佛事에 바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새경밭은 그들 가난한 모자가 살아가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 貧女마저 아낌없이 아들과 뜻을 같이 했었다. 그들 빈천한 모자가 보여준 신앙심은 곧 바로 생활 속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56) 上同, 大城孝二世父母 條.

(3) 이상의 두 이야기보다 조금 후대가 되는 제 35 代 景德王 때에, 康州의 善士 수 10 명이 西方往生에 뜻을 두고 彌陀寺를 세워 萬日念佛契를 맺었다. 그들 중 阿干 貴珍이라는 사람 집에 郁面이라는 婢가 있었는데, 매일 主人을 따라 절로 가서(婢女라 法堂에는 못들어 가고) 마당 가운데 서서 念佛을 따라 하였다. 그 주인이 못마땅히 여기고 저녁마다 두 섬의 곡식을 찧게 하였다. 그래서 郁面婢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절로 가서 염불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당에다 말뚝을 세우고 거기에 두 손을 합장하여 묶어놓고 고단한 몸을 지탱하여 열심히 염불을 하였다. 그러자 어느 날 밤 하늘에서,

"郁面娘은 법당으로 들어가서 염불하라."는 소리가 공중에서 들렸으므로, 寺衆들이 그 소리를 듣고 권해서 郁面은 상전들이 염불하는 법당으로 들어가 정진을 계속하였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서쪽에서 天樂소리가 들려오자 염불하던 郁面의 몸이 솟구쳐 올라 천장(屋樑)을 뚫고 공중에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육신을 버리고 眞身이 蓮華臺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면서 天樂소리에 싸여 천천히 갔다는 것이다.[57]

이는 물론 新羅 淨土信仰의 독특한 현상이므로 깊은 思想性이 함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58] 여기에서는 賤婢의 念佛精進하는 신앙생활과 그 果報인 西方往生만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婢女로서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도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그 몸을 말뚝에 의지하면서까지 염불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신라의 庶民은 물론 賤人에 이르기까지도 그 생활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다. 상전이 고된 일꺼리를 주어 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였으나, 婢女는 끝내 염불精進을 그 몸에서 떠나있게 하지 않았다. 상전들이 염불정진하는 법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賤婢이기 때문에 마당에서 말뚝에 몸을 미끄러매고 염불하였지만, 결국은 그가 먼저 肉身

57) 上同 感通 7, 郁面婢 念佛西昇 條.
58) 拙稿, '新羅의 彌陀思想'(佛敎學報 12, 1975).

騰空하여 極樂世界에 왕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귀족이나 부자만이 아니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도 불교신앙을 그 생활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삼국시대에 그처럼 불교가 서민들의 생활 깊숙히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 신라시대로 들어와서는 더욱 貧賤人들의 생활 속에 그 신앙이 밀착되어 나타났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맺 음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주로 三國時代의 庶民들이 신앙하였던 불교에 관하여 現存史料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살펴 보았었다.

그리하여 먼저 첫장에서 三國時代 백성들의 佛敎理解를, 다음 장에서는 당시의 民間信仰 형태를, 셋째장에서는 庶民들의 生活化된 佛敎信仰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現存資料가 극히 稀少하다는 史料的 限界狀況 때문에 적지않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불충분한 史料를 통해서나마 三國時代 庶民들의 불교신앙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하였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낱같은 관련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 原資料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三國時代 전반에 걸친 庶民들의 불교신앙을 부족한 점이 많은 채로 대충 묶어서 살펴본 셈이 된다.

이상과 같이 매우 미흡한 考察이나마 한마디로 간략하게 간추려서 요약할 수가 있으리라고 본다. 즉,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세 나라의 불교는 모두가 國利民福의 신앙으로 전개되어 此土 利益的이며 本位的인 信仰世界를 확립하였으며, 따라서 王室 貴族 뿐 아니라 貧賤 兒女子에 이르기까지의 일반 서민들도 모두 불교를 理解 崇信하고, 생활과 직결된 신앙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